

# KIA 김석환 “호주 가서 마음껏 쳐보고 올게요”

내야수 김규성·투수 최지민과 함께  
질풍코리아 유니폼 호주리그 참가  
“확실한 내 것 만들어 오겠다” 각오

“마음껏 쳐보고 오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 유망주 김석환이 5일 호주 리그 비행기에 오른다. 김석환은 이번 겨울 팀 동료인 내야수 김규성, 투수 최지민과 질풍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서 경험을 쌓는다.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017년 프로에 뛰어들던 6년 차 김석환은 KIA가 기대하는 ‘차세대 거포’다. 김석환은 지난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1군 5경기에 나와 전역 신고를 했다.

올 시즌에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KIA의 미래로 주목을 받았고, 개막 엔트리는 물론 개막전 선발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김석환은 주전 야수들의 동반 부진 속 아쉬운 볼넷을 보였다.

김석환은 이후 1·2군을 오가면서 부침 많은 시즌을 보냈다.

퓨처스리그에서는 31경기에 나와 0.333의 타율로 4홈런 21타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1군 5경기 성적은 타율 0.149, 3홈런 25타점이었다.

5강 싸움에 급급했던 팀 상황상 꾸준하게 경기에 나서지 못하면서 107타석에 만족해야 했다.

김석환은 호주리그에서 시원하게 방망이를 돌리면서 올 시즌 아쉬움을 뒤로하고 확실한 ‘나의 것’을 만들어 오겠다는 각오다.

김석환은 “올 시즌 좋은 경험을 했다. 많이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웠다. 성적으로 보면 만족할 수 없는 시즌이지만 그 성적 속에서도 얻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돌아보면 프로 6번째 시즌에 찾아온 기회, 마음이 급했다.

김석환은 “시합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부족했다. 잘 안 될 때는 연습 때부터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신경 많이 썼다. 잘 할려고 하니깐 더 안 되고, 땀을 자꾸 바꾸려고 했다”며 “항상 주위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걸 못 들었다. 타이밍 싸움이라고, 폼이 문제가 아니라고들 이야기했는데 귀를 잘 못 열었다. 처음 온 기회니까 뭐든 해보려고 하면서

내 방식 대로만 몰고 갔던 느낌이다. 혼자 빠져서 올라가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석환은 ‘결과’에 대한 부담을 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호주리그에 임할 생각이다.

김석환은 “쉽게 해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니다. 전세계 야구하는 사람들이 겨울에 모여 시합을 하는데 좋은 선수들과도 상대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며 “휴식기를 갖지 않고 뛰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다.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 멀었다고 생각하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 쉬는 걸 떠나야 해 봐야 한다.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코치님들이 마음 편히 가서 생각한 것,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껏 해보고 하겠다. 최형우, 나성범 선배도 마음껏 가서 쳐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부담이 없다고,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오라고 하겠다. 이럴 때 아니면 호주를 언제 가보겠냐(웃음). 윈 없이 야구하고 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질풍코리아는 1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3일까지 매주 4경기씩 총 40경기를 치르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석환

## 울산, 프로축구 통산 첫 600승...광주FC, K리그2 최다 25승

### K리그 2022시즌 기록

K리그는 10월 29일 진행된 승강플레이오프를 끝으로 2022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울산현대가 전북현대의 6연패를 저지하면서 K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성남FC가 최하위팀 ‘강등’ 운명을 맞았다.

K리그2에서는 이정호 감독으로 새 판을 짜 광주FC가 우승팀에 등극해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한다.

그리고 승강플레이오프 결과 K리그2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1 11위 김천상무를 꺾고 승격을 확정했다.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로 승격을 노렸던 FC안양은 수원삼성과 혈투 끝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

각각 두 팀씩 1·2부리그 자리를 바꾸는 것으로 막을 내린 K리그, 기록도 풍성했다.

울산은 지난 8월 21일 김천전 2-1 승리로 프로축구 통산 첫 600승을 달성했다. 울산은 이후 5승을 더하면서 605승으로 시즌을 끝냈다. 2위는 포항S

틸러스로 578승을 채웠다.

울산은 흥행의 중심에도 섰다.

최종전이었던 10월 23일 제주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 2만3817명이 찾으면서 올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이 만들어졌다. 2위 기록도 10월 8일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작성된 2만051명. 9월 18일 수원FC전도 올 시즌 최다 관중 4위(1만 5161명) 경기로 자리했다.

또 다른 ‘챔피언’ 광주는 4경기를 남겨두고 최단 기간 우승을 확정했다. K리그2 최다승(25승)·최다승점(86점) 기록도 새로 작성했다.

올 시즌 12골 4도움을 만든 광주 헤이스는 공격 포인트로는 5위에 자리했지만 득점, 페널티킥, 도움, 실점 등 공식기록은 물론 드리블, 키패스, 크로스, 태클, 인터셉트 등 여러 경기 데이터를 종합한 ‘아디다스 포인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주장 안영규(8위)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낸 박한민(9위)까지 광주에서 3명의 선수가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1 대구FC는 올 시즌 최다 연속 무패, 최다

연속 무승 기록을 동시에 만들었다.

10라운드 포항전부터 21라운드 울산전까지 3승 9무를 기록하면서 지지 않았던 대구는 18라운드 전북전부터 29라운드 포항전까지 6무 6패로 승리를 추가하지 못했다. 올 시즌 K리그1 최다 연속 무패·무승 기록이자 모두 구단 최다 기록이다.

K리그 역대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은 2016시즌 전북 33연속 무패, 최다 무승 기록은 2016시즌 K리그2 고양의 25연속 무승이다.

K리그 최단 시간 경고 기록도 작성됐다.

3월 1일 제주전에서 수원 그로닝이 경기 시작 11초 만에 경고를 받으면서 웃지 못할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앞선 기록은 2002년 울산 박진섭이 기록한 15초다.

K리그2 서울이랜드의 안병준은 킥오프 휘슬이 울린 지 22초 만에 골망을 흔들면서 올 시즌 최단 시간 득점 기록을 장식했다. 이는 프로축구 전체 공동 6위 기록이다. 역대 최단 시간 득점은 2007년 인천 방승환이 기록한 11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고진영, 세계 랭킹 1위 내줬다

LPGA 투어 컷 탈락·부상 휴식  
19세 태국 티미꾼에 밀려 2위로

고진영(27)이 9개월 만에 여자 골프 세계 1위에서 내려왔다.

고진영은 10월 31일자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7.09점을 기록, 아티아 티미꾼(태국·7.13점)에게 0.04점 차로 밀려 2위에 이름을 올렸다.

1월 31일자 순위에서 넬리 코다(미국)를 밀어내고 약 3개월 만에 세계 1위를 되찾았던 고진영은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내려왔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간 대회 성적을 토대로 산출된다. 최근 대회나 메이저대회 등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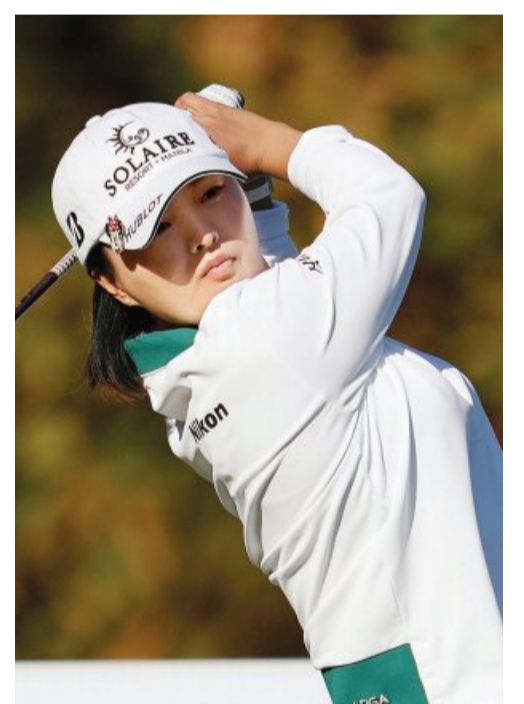
지난주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는 없었으나 고진영은 최근 부상으로 결장이 길어지고 출전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며 상승세의 티미꾼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고진영은 8월 AIG 여자오픈과 CP 오픈에서 LPGA 투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연속 컷 탈락’을 겪었고, 이후 손목 부상을 이유로 휴식기를 보냈다.

반면 이번 시즌 LPGA 투어에 데뷔한 티미꾼은 최근 출전한 5개 대회에서 우승 한 번을 포함해 모두 10위 이내 성적을 내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그는 고진영이 기권했던 최근 대회 BMW 챔피언십에서 세계 1위 등극 기회가 있었으나 6위로 마쳐 간발의 차로 세계 2위를 지키다가 이번 주 정상에 올랐다.

2003년 2월생으로 만 19세인 티미꾼은 17세 9개월에 처음 1위가 됐던 리디아 고(뉴질랜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나이에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선수가 됐다. 만 20세가 되기 전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선수가 리디아 고와 티미꾼 뿐이다. /연합뉴스



고진영



박민지



김수지

## KLPGA 대상·상금 1위 민지나 수지나

2022 시즌 2개 대회 남겨놓고

박민지·김수지 치열한 접전

신인왕은 이예원 이미 확정

3일 에쓰오일 챔피언십 개막

4월 개막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시즌이 2개 대회만을 남긴 가운데 상금과 대상 포인트 부문 1위 경쟁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현재 상금은 12억7156만원의 박민지(24)가 1위, 10억5738만원의 김수지(26)가 2위다.

3일 제주도 제주시 엘티시안 제주(파72·6711야드)에서 개막하는 에쓰오일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은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이 걸려 있다.

이 대회가 끝나면 시즌 최종전 SK윌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11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춘천시 라비에셀 CC에서 펼쳐진다.

SK윌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의 우승 상금이 2억원이기 때문에 이번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상금 1, 2위 격차가 2억원 이하로 좁혀져야 상금왕 경쟁이 시즌 최종전까지 이어진다.

현재 박민지와 김수지의 상금 격차는 약 2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박민지가 김수지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상금 격차가 2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면 박민지가 2년 연속 상금왕을 확정한다.

대상 1위도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정해질 수 있다. 현재 대상 1위는 716점의 김수지, 2위는 614점의 유해란(21)이다.

이번 에쓰오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 대상 포인

트 60점, SK윌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 우승자는 대상 포인트 70점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에쓰오일 챔피언십이 끝난 시점에 대상 포인트 1, 2위 격차가 70점 아래로 좁혀지지 않으면 김수지의 대상 수상이 확정된다.

신인왕은 이예원(19)으로 이미 확정된 가운데 평균 타수에서는 70.36타의 김수지가 1위, 70.51타의 박지영(26)이 2위를 달리고 있다. 박지영은 지난해 에쓰오일 챔피언십 우승자이기도 하다.

올해 에쓰오일 챔피언십에는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에서 선두 경쟁 중인 박민지, 김수지, 유해란, 박지영 등을 비롯해 지난주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스 우승자 이소미(23), 올해 신인왕 이예원, 박현경(22), 조아연(22), 임희정(22)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아울러 티미꾼은 에리아 쭈타누칸에 이어 태국 선수로 역대 두 번째이자, 2017년 박성현(29) 이후 LPGA 투어 신인으로 역대 두 번째로 세계랭킹 1위에 등극한 선수로 이름을 남겼다.

티미꾼, 고진영에 이어 리디아 고가 3위를 달렸고, 코다와 이민지(호주)가 각각, 4·5위를 지켰다.

전인지(28)는 8위를 유지했고, 김효주(27)는 10위로 한 계단 밀렸다.

김세영(29)은 13위, 박민지(24)는 17위, 최혜진(23)은 19위, 박인비(34)는 23위다.

지난달 30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스에서 우승한 이소미(23)는 지난주보다 11계단 뛰어난 5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